

배포일시	2021. 7. 1.(목) 13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27

이번 주말 충남권 첫 장맛비

- 3일 늦은 밤~4일 오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집중
 - 충남권 50~100mm (많은 곳 150mm 이상)
 -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



[7월 3일 늦은 밤~4일 오전 기압계 모식도]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영연)은 3일(토)~4일(일) 충남권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,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어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대전지방기상청은 현재(7월 1일 오전)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3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남권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3일 충남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3일 오후(12~18시)부터 충남권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(강수 집중) 정체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3일 늦은 밤~4일 오전에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,
- (강우 강도)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어 천둥·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4일까지 총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3일~4일) >

- 총남권: 50~100mm (많은 곳 150mm 이상)

- (유의사항) 때문에 도시 내 소하천, 지하도,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,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-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해 4일 오후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,
- 4일 오후 이후에도 3~4일 주기로 통과하는 저기압이 정체 전선을 북상시키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강풍 전망]

- 3일 오후부터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km/h(15m/s)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,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 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풍랑 전망]

- 3일 서해중부전해상에는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.0~4.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,
-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하였다.